
인천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I 의원연구단체 현황

- 연구단체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 연구활동 기간: 2023년 3월 ~ 2023년 11월
- 구성인원: 총 5명
 - 서구의회 의원 5명

연 번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1	대표의원	장문정	서구의회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2	의원	김원진	서구의회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3	의원	서지영	서구의회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4	의원	김동혁	서구의회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5	의원	김춘수	서구의회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II 연구개요

- 주 제: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현안과 필요과제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방안 연구
- 목 적: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 지원 방안 마련 및 국내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한 서구 맞춤형 정책 실현 지원

□ 연구내용

- 서구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현황 및 실태 파악
-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방안
- 타 지자체의 우수 지원 사례 및 조례 등 연구 및 벤치마킹 방안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소득·주거 등 현 지원 방안에 대한 기초 의회 차원의 보충·개선 방안
-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의견 청취 및 조언을 통한 기초의회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 모색

III 활동내역

구 분	연구활동 내용	일정
5월	○ 제1차 간담회 개최 - 연구회 정책방향 논의	5.10.(수)
5월	○ 제2차 간담회 개최 - 연구회 정책방향 논의	5.12.(금)
7월	○ 원주시 비교시찰 - 원주시 의회 방문 - RAUM 강원도 청년자립지원센터 방문	7.13.(목) 7.14.(금)
9월	○ 경주 비교시찰 - 경주시 의회 방문 - 경주엑스포대공원 방문 - 경주시청년센터 청년고도 방문	9.5.(화) 9.6.(수)
11월	○ 연구활동 결과 공유 및 정기회의 - 연구활동 결과 공유	11.16.(목)

IV 세부 활동내역

□ 제1차 간담회 개최

- 일자: 2023. 5. 10. (수) 14:00~15:30
- 장소: 복지도시위원회실
- 참석자
 -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참여의원 4명
 - 관내 아동보호시설장 3명
- 주요내용
 - 연구회 정책 방향 논의
 -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활동 목적 및 참여의원 소개
 -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활동 계획
 - 타 지자체의 지원 사례 및 조례 등 연구 및 벤치마킹 방안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소득·주거 등 현 지원 방안에 대한 기초 의회 차원의 보충·개선 방안
 - 관내 아동보호시설장과의 간담회
 - 관내 아동복지시설장 소개 및 인사
 - 서구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질의 및 답변
 - 정책 연구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 및 시설장의 의견 청취

□ 제2차 간담회 개최

- 일자: 2023. 5. 12. (금) 14:00~15:30
- 장소: 의원간담회장
- 참석자
 -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참여의원 4명
 - 관내 아동보호시설장 3명
- 주요내용
 - 연구회 정책 방향 논의
 -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활동 목적 및 참여의원 소개
 -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활동 계획
 - 타 지자체의 지원 사례 및 조례 등 연구 및 벤치마킹 방안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소득·주거 등 현 지원 방안에 대한 기초

의회 차원의 보충·개선 방안

- 관내 아동보호시설장과의 간담회
 - 관내 아동복지시설장 소개 및 인사
 - 서구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질의 및 답변
 - 정책 연구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 및 시설장의 의견 청취
 -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수렴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비교시찰

○ 일자: 2023. 7. 13.(목) ~ 7. 14.(금) (1박 2일)

○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

RAUM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자립지원센터

○ 참석자

-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참여의원 4명
- 원주시의회 의원 참여의원 4명
- RAUM 청년자립지원센터 직원 2명

○ 주요내용

- 원주시의회 간담회
 -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주요사업 및 선진사례 수집
 -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기초의회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 및 개선책 발굴을 위한 자유로운 상호 의견 교환
 - 자립준비청년 지원 우수 정책의 지역 연계를 위한 협조·교류 요청
 -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외 환경, 문화,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교류
 - 추후 원주시의회와 서구의회 간의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 결과 공유
 - 양 의회 간 지속적인 상호 교류 기회 마련
- RAUM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자립지원센터 간담회
 - RAUM에 대한 소개: 라움은 삼성 희망디딤돌 사업 지원으로 2017년 준공 및 강원도 기부채납(건물)로 완료되었으며, 2019년에 강원도 아동자립지원시설 5년 위탁을 통해 아동자립지원단, 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음
 - 강원도 지역의 매년 시설 퇴소 및 보호 종료되는 아동은 평균 약 200~350명 정도로 많으며, 대부분 주거, 취업 등 자립 준비가

-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강원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정된 자립지원 체계 구축, 주거환경,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음(1인 1실 제공)
- 자립준비청년이 라움 입소 시 100만원의 보증금과 월 7만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생활하게 되며, 최대 2년 입주가 가능함 (대부분 자립수당 50만원, 정착지원금 1,000만원)
- 개별 상담, 사례관리를 전담하여 일상에서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채무 등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변호사, 노무사를 연결하여 지원하고 있음
- 자립준비청년들은 근로의욕이 낮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아르바이트 연결을 통해 지원함
-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조언

□ 경상북도 경주시 비교시찰

○ 일자: 2023. 9. 5.(화) ~ 9. 6.(수) (1박 2일)

○ 장소: 경상북도 경주시 의회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주시 청년센터 ‘청년고도’

○ 참석자

-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참여의원 3명
- 경주시의회 의원 참여의원 4명
- 경주엑스포대공원 솔거미술관 2명
- 경주시 청년센터 ‘청년고도’ 3명

○ 주요내용

- 경주시의회 간담회
 - 경주시의회 자립준비청년 지원 주요사업 및 선진사례 수집
 -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기초의회 지원 방안 발굴을 위한 자유로운 상호의견 교환
 - 자립준비청년 전담기관 예산 및 인력 등 운영지원 정책 공유

- 자립준비청년 지원 우수 정책의 지역 연계를 위한 협조·교류 요청
- 퇴소 전·후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자립 지원의 필요성 공유
- 경주엑스포대공원 솔거미술관 간담회
 - 2021년 8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어린이의 꿈과 행복한 삶’을 위한 상호교류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시책 지원차원에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사회참여 기회와 직업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고자 「열여덟 혼자서기」 인턴십 기획
 - 인턴십 내용: 미술관 전시기획 및 전시 준비, 홍보마케팅 기획 등
 - 자립준비청년 인턴십 참여자들의 체험후기 공유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질의 및 답변
 - 보호단계부터 자립 이후까지 연계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적·정서적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 인식
 -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제안
- 경주시 청년센터 ‘청년고도’
 - 경주시청 일자리 창출과(청년일자리팀)에서 운영하며,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프로그램 위탁 운영
 - 청년센터를 통한 구직단념청년 발굴, 구직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이 없는 청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운영
 -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참가 사례 공유
 - 인턴십 및 지원사업 등의 운영기간이 짧아 확대운영 필요
 - 청년도전지원사업 모집시 자립준비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자격 요건 완화 등의 필요성 의견 공유
 -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 후기 공유
 - 은둔형 고립 청년 지원 방안 모색

연구활동 결과 공유 및 정기회의 개최

- 일자: 2023. 11. 16.(목) 12:00~14:00
- 장소: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

- 참석자
 -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참여의원 5명
- 주요내용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소득·주거 등 현 지원 방안에 대한 기초 의회 차원의 보충·개선 방안 결과 공유
 - 타 지자체의 지원 사례 및 조례 등 연구결과 공유

V 주요성과 및 의견

□ 간담회 성과 및 의견

- 관내 아동보호시설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 문제 및 활동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의견 청취
- 제시된 의견에 대한 담당 부서에 질의 및 답변
 - 각종 복지 수당 시설명의 계좌 지급 방안 필요
 - 자립 이후 대상 아동을 관리할 수 있는 지자체 간 통합관리 방안 필요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대상자 전출 시 시스템을 통한 사례 이관 및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통한 전출 통보를 시행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 지원 인상 및 구비를 통한 추가 지원방안 필요
 -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 지원(학원수강비 포함) 사업은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시비보조금 사업임.
 - 인천시 문의 결과 학원비 지원에 대한 미취학 아동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학원비 인상 필요성을 인지하고 노력하고 있음.
 - 다만 구비를 통한 추가 지원은 지자체 간의 형평성 문제로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필요한 사항임.
 - 자립준비 아동을 위한 금융·부동산 교육자료 필요
 - 아동권리보장원, 하나금융그룹,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서 맞춤형 교육 운영 중

- * 아동복지시설 금융교육 운영(아동권리보장원&서민금융진흥원 협약)
- * 교육기간: 2023. 2. ~ 6.
- * 교육내용: 보호아동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 * 교육방법: 실시간 화상교육 및 실시간 메타버스 교육
- * 교육비용: 무료
- 하나금융그룹 자립준비청년 대상 집합 금융교육
- 유튜브 하나TV(하나금융그룹) 자립준비청년 금융교육 운영 중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온라인교육, 방문교육, 온택트 교육 등)
- 시설 자립계획서 희망이음 전산 입력 오류 해결 방안 요청
- 정부차원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9월 6일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희망이음(사회 서비스정보 시스템)으로 변경·개통됨에 따라 시스템 오류 발생하고 있으며 희망이음 시스템 질의등록을 통한 건의 사항 전달

□ 비교시찰 성과 및 의견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인천시 서구 자립준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관내 아동보호시설장과의 간담회와 RAUM 방문에서 청취한 전문가 의견 중 공통되는 부분을 중점으로 정책 연구
- 원주시, 경주시 비교시찰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지원 개선 방안 마련
- 자립준비청년들이 독립하여 주체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현재의 정책 및 지원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기타 자립에 필요한 정보 등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인턴십이나 지원사업 등의 기간이나 횟수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자립의지 및 자립역량 향상을 돕는 제도 보완이 필요

□ 연구활동 결과 공유 및 정기회의 의견

-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활동결과 내용 공유
-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 논의

- 서구복지재단 설립 후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필요 논의
- 자립준비청년 관련하여 기초의회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 필요
- 2024년 자립준비청년 정책 지원 활성화 필요
- 자립준비청년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 진단 요구를 통해 대안 도출
- 기존의 자립준비청년 정책방향 및 지원형태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의 현황과 실태 조명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 제안

VI 언론보도

□ 간담회(제1차~2차)

중앙신문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012면 인천

서구의회,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방향 논의 '한자리'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아동복지시설 시설장과 간담회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장문정, 김원진, 서지영, 김동희, 김춘수 의원)'는 지난 10일, 12일 서구의회에서 관내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장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방향 논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이하 정책연구회)'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만 18세)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서구 맞춤형 정책 실현을 지원하고자 구성된 의원 연구단

체다.

이번 정책 방향 논의 및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경험 및 건의 사항을 듣고 지원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회에 걸쳐 관내 6개 아동복지시설장(예람, 프렌즈, 행복한집, 아너를래스, 온유, 꿈이있는집)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타 기관 등 현장 방문, 관련 조례 개정 검토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연구회 대표 장문정 의원은 "관내 아동복지시설장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하고 현실적인 의견을 들었다. 앞으로 서구청 아동행복과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이복수기자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는 지난 10일, 12일 서구의회에서 관내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장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방향 논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아동복지시설과 지원 방향 논의

다양한 현장경험·건의사항 청취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 위한 정책 추진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는 지난 10일과 12일 서구의회에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장들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만 18세)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서구 맞춤형 정책 실현을 지원하고자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정책 방향 논의 및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경험 및 건의 사항을 듣고 지원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회에



인천 서구의회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의원들과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장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구의회

걸쳐 지역 내 6개(예람, 프렌즈, 행복한집, 아너플러스, 은유, 꿈이있는집) 아동복지시설장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타 기관 등 현장 방문, 관련 조례 개정 검토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정책을 추

진할 계획이다.

장문정 대표의원은 "지역 내 아동복지 시설장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하고 현실적인 의견을 들었다"며 "앞으로 서구청 아동행복과와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병수기자

서구의회 '인천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정책 방향 논의간담회 개최

☞ 박주용 기자 | 📅 승인 2023.05.15 14:22



(사진=서구의회)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는 지난 10일과 12일 서구의회에서 관내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장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방향 논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이하 정책연구회)'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만 18세)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서구 맞춤형 정책 실현을 지원하고자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정책 방향 논의 및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경험 및 건의 사항을 듣고 지원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회에 걸쳐 관내 6개 아동복지시설장과(예람, 프렌즈, 행복한집, 아너플러스, 은유, 꿈이있는집)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타 기관 등 현장 방문, 관련 조례 개정 검토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연구회 대표 장문정 의원은 "관내 아동복지시설장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하고 현실적인 의견을 들었다. 앞으로 서구청 아동행복과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구/박주용 기자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신문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010면 인천

서구의회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타지역 우수사례 자료 수집

원주시의회-자립청년지원센터방문 기초의회차원지원 모색의견교환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장문정, 김원진, 서지영, 김동혁 의원)'가 지난 13~14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와 RAUM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청년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이하 정책연구회)'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만 18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의

원 연구단체다.

이번 비교 시찰은 타지역 우수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우수 청년자립지원센터 전문가로부터 의견과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RAUM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청년지원센터는 2017년에 준공되어 2019년부터 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 위탁운영(아동자립지원단, 자립생활관)을 통해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준비, 자립생활, 취업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

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책연구회 대표 장문정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이번 비교 시찰을 통해 기초의회 간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상호 정보와 의견을 공유했고 앞으로 보호 종료 아동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원주시의회와 환경,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서구에 적합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복수기자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장문정, 김원진, 서지영, 김동혁 의원)'가 지난 13~14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와 RAUM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청년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도민일보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009면 인천

서구의회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비교 시찰

RAUM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청년지원센터 방문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장문정, 김원진, 서지영, 김동혁 의원)'가 7월 13일~14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와 RAUM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청년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이하 정책연구회)'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만 18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비교 시찰은 타지역 우수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우수 청년자립지원센터 전문가로부터 의견과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RAUM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청년지원센터는 2017년에 준공돼 2019년부터 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 위탁운영(아동자립지원단, 자립생활관)을 통해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준비, 자립생활, 취

업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책연구회 대표 장문정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이번 비교 시찰을 통해 기초의회 간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상호 정보와 의견을 공유했고 앞으로 보호 종료 아동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원주시의회와 환경,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해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서구에 적합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정규 기자

서구의회 자립준비청년, 강원도 자립청년센터 방문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는 지난 13일~14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와 RAUM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청년지원센터를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만 18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장문정, 김원진, 서지영, 김동혁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비교 시찰은 타지역 우수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로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우수 청년자립지원센터 전문가로부터 의견과 조언을 듣기 위한 자

리였다. RAUM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청년지원센터는 2017년에 준공되어 2019년부터 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 위탁운영(아동자립지원단, 자립생활관)을 통해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준비, 자립생활, 취업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문정 정책연구회 대표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이번 비교 시찰을 통해 기초의회 간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상호 정보와 의견을 공유했고 앞으로 보호 종료 아동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원주시의회와 환경,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원주시의회·강원센터 비교 시찰

인천서구의회의원연구단체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는 13~14일 이틀간 강원도 원주시의회와 RAUM 강원자립청년지원센터 방문했다.

연구회에 속한 장문정·김원진·서지영·김동혁 의원은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이번 비교 시찰을 기획했다.

원주시의회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센터에서는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전문가 조언을 들었다.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는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다.

연구회 의원들은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해 서구에 적합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기자 parkbj2@incheonilbo.com

□ 경주시 비교시찰

경도신문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005면 정치



인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가 비교시찰을 위해 경주시의회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제공=인천서구의회)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경주시 비교시찰 및 간담회

인천 서구의회의 의원연구단체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가 최근 비교시찰을 위해 경주시의회와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주시청년센터를 방문했다.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이하 정책연구회)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만 18세)의 지원 방안 및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정책 실행을 지원하고자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지난달에는 원주시의회와 자립청년지원센터 방문에 이어 이번 경주 비교시찰은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기초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및 정책을 논의하고자 실시했다.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솔거미술관에서는 재단과 기업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턴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연구회는 간담회를 통해 인턴십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소감을 들으며, 자립준비청년이 겪고 있는 현실에 공감했다.

경주시청년센터에서는 청년에게 자신감과 취업의욕을 끌어낼 수 있도록 밀착상담, 사례관리,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워크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

년도전지원사업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최근 6개월간 취업 등 이력이 없는 청년'으로 자격 요건을 유연하게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장문정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독립해 주체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사회적으로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며, 인턴십이나 지원사업 등의 기간이나 횟수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는 등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대안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기성기자

일간경기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004면 중한

경주시의회·경주엑스포대공원 시찰

인천 서구의회의 의원연구단체
지난 5~6일 비교시찰차 방문

인천 서구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장문정·김원정·서지영 의원)가 지난 5일과 6일 비교시찰을 위해 경주시의회와 경주엑스포대공원·경주시청년센터를 방문했다.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장문정·김원정·서지영 의원)가

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만 18세)의 지원 방안 및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정책 실행을 지원하고자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지난 7월에는 원주시의회와 자립청년지원센터 방문에 이어 이번 경주 비교시찰은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기초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및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했다.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솔거미술관에서는 재단과 기업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턴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연구회는 간담회를 통해 인턴십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소감을 들으며, 자립준비청년이 겪고 있는 현실에 공감했다.

경주시청년센터에서는 청년에게 자신감과 취업의욕을 끌어낼 수 있도록 밀착상담, 사례관리,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워크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정책연구회 대표 장문정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독립해 주체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사회적으로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며, 인턴십이나 지원사업 등의 기간이나 횟수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는 등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대안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홍성 기자

자립준비청년들의 다양한 대안과 정책 마련 최선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경주시 비교시찰 및 간담회 실시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장문정, 김원진, 서지영 의원)」가 지난 5일과 6일 비교시찰을 위해 경주시의회와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주시청년센터를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이하 정책연구회)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만 18세)의 지원 방안 및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정책 실현을 지원하고자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지난 7월에는 원주시의회와 자립청년지원센터 방문에 이어 이번 경주 비교시찰은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기초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및 정책을 논의하고자 실시됐다.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솜거리미술관에서는 재단과 기업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턴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연구회는 간담회를 통해 인턴십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소감을

들으며, 자립준비청년이 겪고 있는 현실에 공감했다.

경주시청년센터에서는 청년에게 자신감과 취업의욕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사례관리,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워크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최근 6개월간 취업 등 이력이 없는 청년'으로 자격 요건을 유연하게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정책연구회 대표 장문정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독립해 주체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며, 인턴십이나 지원사업 등의 기간이나 횟수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는 등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대안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복수 기자

인천 서구의회, 경주시의회등 비교시찰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 논의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장문정, 김원진, 서지영 의원)」가 최근 비교시찰을 위해 경주시의회와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주시청년센터 방문했다.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이하 정책연구회)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지원 방안 및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정책 실현을 지원하고자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지난 7월에는 원주시의회와 자립청년지원센터 방문에 이어 이번 경주 비교시찰은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기초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및 정책을 논의하고자 실시됐다.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솜거리미술관에서는 재단과 기업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턴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연구회는 간담회를 통해 인턴십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소감을 들으며, 자립준비청년이 겪고 있는 현실에 공감했다.

경주시청년센터에서는 청년에게 자신감과 취업의욕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사례관리,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워크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최근 6개월간 취업 등 이력이 없는 청년'으로 자격 요건을 유연하게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인한=문찬식 기자 mcs@siminibo.co.kr

중앙신문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경주시 비교시찰·간담회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우수사례수집, 지원방안·정책논의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장문정, 김원진, 서지영 의원)」가 지난 5일과 6일 비교시찰을 위해 경주시의회와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주시청년센터를 방문했다.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이하 정책연구회)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만 18세)의 지원 방안 및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정책 실현을 지원하고자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지난 7월에는 원주시의회와 자립청년지원센터 방문에 이어 이번 경주 비교시찰은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기초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및 정책을 논

의하고자 실시했다.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솜거리미술관에서는 재단과 기업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턴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연구회는 간담회를 통해 인턴십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소감을 들으며, 자립준비청년이 겪고 있는 현실에 공감했다.

경주시청년센터에서는 청년에게 자신감과 취업의욕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사례관리,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워크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최근 6개월간 취업 등 이력이 없는 청년'으로 자격 요건을 유연하게 할 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장문정, 김원진, 서지영 의원)가 지난 5일과 6일 비교시찰을 위해 경주시의회와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주시청년센터를 방문했다

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정책연구회 대표 장문정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독립해 주체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며, 인

턴십이나 지원사업 등의 기간이나 횟수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는 등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대안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복수 기자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경주시 비교시찰 및 간담회 실시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장문정, 김원진, 서지영 의원)'가 지난 5일과 6일 비교시찰을 위해 경주시의회와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주시 청년센터를 방문했다.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이하 정책연구회)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만 18세)의 지원 방안 및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정책 실현을 지원하고자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지난 7월에는 원주시의회와 자립청년지원센터 방

문에 이어 이번 경주 비교시찰은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기초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및 정책을 논의하고자 실시됐다.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솔거미술관에서는 재단과 기업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턴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연구회는 간담회를 통해 인턴십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소감을 들으며, 자립준비청년이 겪

고 있는 현실에 공감했다.

경주시청년센터에서는 청년에게 자신감과 취업의욕을 끌어낼 수 있도록 밀착상담, 사례관리,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워크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최근 6개월간 취업 등 이력이 없는 청년'으로 자격 요건을 유연하게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정책연구회 대표 장문정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독립해 주체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며, 인턴십이나 지원사업 등의 기간이나 횟수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는 등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대안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정규 기자

중부일보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008면

인천

인천의회 단신

서구의원들, 경주시청년센터 시찰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원들이 선진지를 시찰했다. 서구의회는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에서 활동하는 장문정, 김원진, 서지영 의원이 지난 5일부터 이틀간 경주시의회와 경주시 청년센터 등을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밀착상담, 사례관리,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과도 연계될 수 있는 방식들을 보고 배웠다. 또한 '최근 6개월간 취업 등 이력이 없는 청년'으로 자격 요건을 유연하게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최기주기자

□ 활동결과 공유 및 정기회의

신아일보

40대 · 50대 · 60대

서구의회 서구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정기회의 개최

신아일보 기자 · 2023년 11월 16일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가 16일 서구의회에서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 활동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회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만 18세)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서구 맞춤형 정책 실현을 지원하고자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의 현황과 실태를 조망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2024년 자립준비청년 정책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지난 원주시, 경주시 비교시찰과 관련기관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공유하며,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의 취지와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표했다.

정책연구회 대표 장문정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연구회 활동이 종료되어도 자립준비청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성 있는 지원에 힘쓰겠다"라며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신아일보의 인천(서구)부 기자

시대일보

신아일보 (신아일보) (신아일보)

인천 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정기회의 개최

신아일보 기자 · 2023년 11월 16일



▶ 이번 서구의회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대표 장문정, 김원진, 서지영, 김동혁, 김준수 의원이 지난 16일, 서구의회에서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 활동 결과 공유를 공유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열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만 18세)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서구 맞춤형 정책 실현을 지원하고자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의 현황과 실태를 조망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2024년 자립준비청년 정책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지난 원주시·경주시 비교시찰과 관련기관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공유하며,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의 취지와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표했다.

정책연구회 대표 장문정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연구회 활동이 종료되어도 자립준비청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성 있는 지원에 힘쓰겠다"라며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인천 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 공유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뉴스동자 · 2023년 11월 16일 12시 11분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장문정, 김원진, 서지영, 김동혁, 김준수의원)'는 지난 16일, 서구의회에서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 활동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이하 정책연구회)'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만 18세)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서구 맞춤형 정책 실현을 지원하고자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의 현황과 실태를 조망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2024년 자립준비청년 정책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지난 원주시(경주시 비교시찰과 관련기관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공유하며,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의 취지와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정책연구회 대표 장문정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연구회 활동이 종료되어도 자립준비청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성 있는 지원에 힘쓰겠다"라며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BreakNews

뉴스동자 (뉴스동자) (뉴스동자)

인천서구의회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공유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뉴스동자 기자 · 2023년 11월 16일 14:00

▲ 인천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공유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사천재공·인천 서구의회) (C)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인천 서구의회가 지난 16일 의원연구단체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장문정, 김원진, 서지영, 김동혁, 김준수 의원)'가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 활동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이하 정책연구회)'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만 18세)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서구 맞춤형 정책 실현을 지원하고자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의 현황과 실태를 조망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2024년 자립준비청년 정책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지난 원주시(경주시 비교시찰과 관련기관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공유하며,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의 취지와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정책연구회 대표 장문정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연구회 활동이 종료되어도 자립준비청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성 있는 지원에 힘쓰겠다"며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